

취약성과 서사

—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초학제적 접근*

이소영**, 노대원***, 백영경****, 황임경****

■ 목차 ■

1. 서론
2.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 관계
3. 취약성과 질병 서사
4. 취약성의 서사와 인권
5. 취약성의 서사와 인류세
6. 결론

벼 리

이 논문은 취약성에 관한 서사를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관점에
서 분석하기 위해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 관계를 논의하며, 질병,
인권, 인류세 위기의 측면에서 취약성 서사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탐구한다. 21세
기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서 취약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6464).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부교수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 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생태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서사가 취약성의 다면적 특성을 포착하고 사회적 변화와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분석한다.

질병 서사는 환자의 질병 경험을 서사화하여 고통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릭 카셀과 아서 클라인만은 생의학 모델의 기계론적 관점을 넘어, 질병이 개인의 전체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고통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은 서사의학으로 발전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며, 질병 서사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의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법적 맥락에서의 취약성 서사는 자유주의적 근대법이 상정한 자율적 주체 개념을 재고하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 취약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공감적인 인권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권법에서 취약성 서사는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을 서사화하여 법적 권리와 보호를 주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범주를 확장하여 인간 중심적인 인권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류세 시대의 기후 변화, 팬데믹과 같은 복합적 위기는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드러낸다. 인류세적 관점에서 취약성 서사는 단순한 환경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해석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대응 방식을 탐색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특히 섬의 취약성 연구는 섬을 단순히 취약한 장소로 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태적·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비판적 실천 서사학 관점에서 서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천과 저항의 도구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을 서사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서사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통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제어: 취약성, 비판적 실천 서사학, 취약성 서사, 질병 서사, 서사의학, 인권법, 사회적 소수자, 인류세, 기후 변화

1.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과 집단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첨단기술의 발전,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 기후 위기 및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위협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단순히 신체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생태적 맥락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재조명한다. 취약성은 한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인류 공동체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일한 학문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¹

특히 취약성은 인류가 자연과 맺는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인류세(Anthropocene)’ 개념이 주목받았고,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취약성을 재조명하게 했다. 인류세적 관점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도전과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는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취약성이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권력관계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특히 ‘비판적 실천 서사학’(critical-practical

1 노대원·이소영·황임경,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3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7-18쪽.

narratology)의 시각을 통해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취약성의 본질적 특성과 그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표현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판적 실천 서사학이란 서사를 단순한 이야기 구조 분석의 틀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존적·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서사가 어떻게 자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적 접근을 뜻한다.² 이 접근법은 서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 역할을 하는지, 특히 취약성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서사가 어떻게 실존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법적 차별, 생태적 재앙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서사는 인간 경험을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핵심 관점이다.

취약성에 관한 서사는 단순히 고통을 나열하거나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복합적 맥락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해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의 발전은 이러한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판적 실천 서사학’은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Arthur W. Frank)의 ‘사회-서사학(socio-narratology)’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 서사학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두는 기존 서사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서사를 일종의 행위자로 인식하면서 서사적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의 역량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사람들을 집단과 연결하고, 특정 플롯에 따라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서사학에서 이야기와 사람은 일종의 공생 관계로 상정되며, 모든 인간관계, 집단, 상호 의존과 배제를 포함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서사는 핵심적인 행위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회-서사학에서 ‘사회적인 것’은 서사를 통해 형성되는 각종 사회적 실천의 집합이자 지속적인 재조합의 동적인 과정을 뜻하게 된다. A. W. Frank, *Letting Stories Breathe: A Socio-Narrat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12-15.

취약성 서사의 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자의 고통을 단순히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복합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인간적인 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취약성 서사는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법적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법률과 인권 서사는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들의 취약성을 사회적, 법적 틀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서사화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와 같은 이론가들에게 서사는 취약한 주체들이 그들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변화를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로 해석된다.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취약성 서사는 단순한 인간 조건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실천적 행위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관점에서 취약성과 서사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사가 어떻게 취약성의 복합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그 안에 내재한 사회적·정치적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드러내는지 탐구한다. 특히, 의학적 맥락에서의 질병 서사, 법적 맥락에서의 인권 서사, 인류세 담론에서의 재난과 복원 서사 그리고 취약성의 서사학을 통해 취약성 서사가 인간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윤리적·정치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취약성이 인간의 필연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생태적 맥락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은 취약성과 서사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분석을 넘어,

3 특히 윤조원 역,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46-86쪽 참조.

실제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취약성 서사는 개인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의미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이 사회적·정치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변화와 저항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인류세 시대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 서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복합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성과 서사 연구는 학문적 분석을 넘어 실천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 관계를 논의한 뒤, 질병, 인권, 인류세 위기의 측면에서 취약성 서사에 관해 차례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 관계

취약성 서사는 소수자와 약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고통과 이야기를 그리며 소설 같은 문학 장르나 영화 예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서사학(narratology)이 서사문학 이외에도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취약성 서사는 문학이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 시대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조건 탓에 취약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소설 미디어, 공공 담론,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된다. 취약성 서사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학제적, 초학제적 연구 성격을 지니는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에서 취약성과 서사가 ‘함께’ 학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서사는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취약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러한 다면성은 하나의 학문 분야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서사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서사 심리학(narrative psychology)이나 인지과학에 따르면, 서사는 복잡한 경험을 조직화하고 의미화하는 인지적 도구로 기능한다.⁴ 서사는 취약성의 복잡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취약성에 관한 서사는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험의 시간성, 맥락, 감정적 차원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취약성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의료문학은 심신의 취약성과 회복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고, 서사의학은 환자의 이야기와 치료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법학에서는 법률과 인권, 정책의 서사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취약성의 서사는 개인의 치유를 돕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서사는 욕망과 정념에 결합하여 지식과 이념, 사회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또한 서사는 의미 있는 갈등과 문제를 재현하여 선택과 판단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의 경계, 텍스트의 경계,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넘어서, 취약성의 서사는 개인과 사회의 환부를 드러내어 진단과 치유를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컨대, 질병 서사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과 취약성을 외재화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질병 서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과

4 노대원, 『몸의 인지 서사학: 질병과 치유의 한국소설』, 박이정, 2023, 15-16쪽.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질병 서사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치료와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야기 치료(narrative therapy)나 문학치료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⁵

개인의 치유와 사회적 인식 변화는 상호작용하며, 정책적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사가 널리 공유되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서사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취약성에 관한 서사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취약성 서사는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경험과 필요를 전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안 개발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취약성의 서사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카트리오나 매켄지(Catriona Mackenzie) 등의 취약성 개념의 분류 가운데 병리적(pathogenic) 취약성은 정치적 억압, 사회적 부정의, 착취, 부도덕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⁶,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역할에 쓰일 수 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학은 취약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이는 취약성 서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버틀러는 레비나스의 취약성 개념을 정치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5 힐링 또는 테라피 문화는 중산층 계급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 결여와 관련되어 있는 비판을 받는다. 취약성 서사에는 윤리적, 사회적 전환이 요청된다. 노대원, 「힐링 담론과 치유의 문학교육 — ‘상처 입을 가능성’과 ‘문화 의사’ 개념을 통한 비판적 성찰」, 『국어교육연구』 68, 국어교육학회, 2018.

6 C. Mackenzie, W. Rogers, S. Dods,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7-9.

고 주장한다.⁷ 버틀러는 취약성을 정치적 저항의 근거로 삼아 취약성의 정치학을 제안한다. 취약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취약성 서사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정치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지식 이론 역시 서사가 어떻게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동시에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⁸ 특정 집단의 취약성을 다루는 서사는 그 집단이 사회에서 어떻게 억압되고 소외되는지를 보여준다.

취약성 서사는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서사 문학은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취약성을 폭로하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취약성의 서사화에는 단순화되거나 왜곡된 재현의 문제, 스펙터클로서 소비되거나 상품화될 위험성, 피해자 정체성으로의 고착화 위험 등 주의해야 할 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성의 정치학과 서사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성과 서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통찰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특히 인류세 시대의 팬데믹과 기후 재난, 전쟁과 난민,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문제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환경과 관련된 취약성 서사를 연구함으로써,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은 최근에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라는 새로운 학제적

7 노대원, 이소영, 황임경, 앞의 논문, 21-26쪽.

8 황임경,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25, 한국의철학회, 2018, 56-61쪽.

영역으로 발전했다.⁹ 의학, 문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성과 서사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취약성과 서사 논의는 전공의 경계를 넘어 (융합) 교육에서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학교육에서는 환자의 경험을 문학이나 서사와 결합하여 의료인의 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문학교육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을 이해시키며 공감 능력을 키우고 윤리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¹⁰ 법학교육에서는 법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들 교육 분야가 상호 연계되면, 학생들은 복잡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를 통해 실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취약성과 서사를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는 연구는 한 마디로 실천적이며 비판적인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의 취약성 서사 연구는 취약한 주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마스터플롯(masterplot)이나 주류 서사에 대한 대안적/대항적 서사를 형성하고 경합하도록 할 수 있다.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이 서사적 발화 및 해석 역량의 의미로 말한 ‘서사적 행위능력’(narrative agency)¹¹이 사회적으로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론 작업을 넘어선 이 연구의 실천적 지향점이다.

미디어 사회학자인 닉 콜드리(Nick Couldry)는 신자유주의 문화를 ‘계모니적 합리성’이라고 정리하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목소리의 위기를

9 노대원·이소영·황임경, 앞의 논문, 17-20쪽.

10 노대원, 앞의 논문, 134-139쪽.

11 유병선 역, 리처드 세넷, 『뉴캐피털리즘』, 위즈덤하우스, 2009, 222쪽. 역서의 ‘서사 대항’(narrative agency)이란 역어를 본 논문의 필자들이 수정하였음.

꼭고 있다.¹² 그가 말하는 목소리(voice)란 ‘자기의 삶을 서사화할 수 있는 능력’이자, ‘자신의 삶을 서사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능력’이다.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방식으로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앗아가는 통치 합리성이며, 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 역사 속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서사 역시 특정한 방향으로 생산되거나 활용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취약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은 서사적 재현에서 배제되거나 서사 역량의 계발에서 소외된다. 따라서 서사에 대한 비판적, 실천적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서사의 분석과 활용은 자칫 지배적인 통치 합리성을 그대로 재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점에서 본 연구는 서사와 그 사회문화적 조건을 분리해 파악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3. 취약성과 질병 서사

3.1. 의료에서의 취약성과 질병 서사

현대의학에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생의학(biomedicine) 모델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별 인간의 고통을 재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의학교육이나 의료 실천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 이상의 것으로 인간의 다층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에릭 카셀(Eric J. Cassell)과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은 이러한 고통과 취약성의 중요성을 강

12 이정엽 역, 닉 콜드리,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 글항아리, 2014, 15-48쪽.

조한 대표적인 학자들로, 이들의 연구는 생의학 모델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생의학의 기계론과 환원주의를 거부하고 전인적인 돌봄을 옹호 하면서 고통이란 환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몸, 사적인 삶, 가족, 사회, 문화, 정치, 영적 차원 등이 얹혀 있는 매우 복잡한 존재이며, 질병은 인간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끼치고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파괴하여 고통을 유발한다.¹³ 하지만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엄격히 구분하고 통증의 제거에 집중하는 현대의학은 고통의 실존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쉽게 외면한다. 더 나아가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무엇보다도 의학에서의 고통은 신체적 통증이 사라지면 저절로 회복될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이처럼 의학에서 주변화된 고통은 삶에서 고통이 지나는 성찰적 의미와 창조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고통에 의한 자아의 위협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고통을 성찰함으로써 자아를 재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고통은 무조건 쓸모없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도덕적 경험이기도 하다.¹⁴ 따라서 의학의 목표는 단지 질병의 제거만이 아닌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돌보는 것에 있다. 누구나 병에 걸리고 노쇠하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취약성을 돌보는 것에 의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취약성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13 강신의 역, 에릭 J. 카셀,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코기토, 2002, 346쪽.

14 이애리 역, 아서 클라인만,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사이, 2022, 458쪽.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셀과 클라인만이 제시하는 것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 즉 질병 서사(illness narrative)를 활용하지는 것이다. 아픈 이가 자신의 질병 경험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의 의미가 구성되고, 이는 질병 경험의 이해뿐 아니라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인만은 ‘설명 모델(explanatory model)’을 제시하여 질병 서사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이 특정 질병 사건에 대해 갖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했다.¹⁵ 카셀 역시 몸에 대한 정보 못지않게 환자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임상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가치 평가를 위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행동을 관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¹⁶ 이처럼 카셀과 클라인만은 고통의 의미와 서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현대의학의 실천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서사의학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

대표적인 서사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타 샤론(Rita Charon)에 의하면, 서사의학은 “질병 서사를 인식하고, 흡수하고, 해석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사적 기술과 함께 수행되는 의학”으로 정의된다.¹⁷ 샤론은 서사

15 “설명 모델은 환자와 그 가족, 의사가 특정 질병 사례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다. [...] 설명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왜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 지금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가? 이 질병과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앞의 책, 144-145쪽.

16 같은 책, 404-408쪽.

17 R. Charon, *Narrative Medicine: Honoring the Stories of Ill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4.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에 놓여 있는 시간성, 개별성, 인과성과 우연성, 상호 주관성, 윤리성 등의 특성을 환자-의사 관계에서도 발견하고, 텍스트 이해와 해석의 방법론을 의학에 적용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소외된 아픈 이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서사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와 ‘창의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등의 교육 방법론을 활용하여 임상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환자의 세계를 상상하며, 환자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사의학은 의료 서사를 탈중심화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질병에 걸리고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서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¹⁸

최근에 서사의학은 환자-의사 관계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탐색하고 있다. 트라우마, 국가 폭력, 국제 보건 불평등, 건강 격차에 관한 질문을 통해 침묵 당하는 목소리를 듣고 증언하며, 보건의료에 평등의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¹⁹ 이는 서사의학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상상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겸손한 증인의 태도를 갖추며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²⁰ 또한 취약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넘어 맥락에 따른 특수 취약성에 관한 관심과 실천으로 서사의학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3.2. 자전적 질병 서사와 서사 이론

18 김준혁 역, 리타 샤론 외,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사이, 2021, 214쪽.

19 같은 책, 265쪽.

20 같은 책, 260쪽.

이처럼 질병 서사는 의료 실천이나 의학교육에 활용되어 현대의학에서 소외된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질병 서사는 질병 경험과 자아 그리고 사회문화적·의료적 맥락과의 상호 작용을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서사 이론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서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전적 질병 서사의 한 유형인 '투병기(pathography)'를 연구한 앤 현세 이커 호킨스(A. H. Hawkins)에 따르면 책 한 권 분량으로 자신의 질병 체험을 기록하는 일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매우 현대적인 현상이다.²¹ 토머스 쿠저(G. Thomas Couser)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새로운 유형의 삶-쓰기(life-writing)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몸의 기능장애와 개인적 서사가 결합한 복합적 서사를 '자전적 투병기(autopathography)'로 명명한다.²²

왜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투병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을까? 이 시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생의학이 권위를 높여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각종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정체성 정치와 환자 권리 운동 및 장애 운동 등의 탈권위 움직임이 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의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억압되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가 분출한 것이다.²³ 투병기는 그러한 욕구의 서사적 발현이다. 게다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21 A. H. Hawkins, *Reconstructing Illness: Studies in Pathography*, (West Lafayette, IN: Purdue University Press, 1999), p. 3.

22 G. T. Couser, *Recovering Bodies: Illness, Disability, and Life-Wri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5.

23 A. H. Hawkins, op. cit., pp. 8-12.

이전에 질병은 그저 여러 삶의 위기 중 하나로 인식되어 환자나 가족, 혹은 공동체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반면, 의료화된 시대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삶의 재앙이자 자아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개인적 서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²⁴

하지만 자전적 질병 서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문학과 서사 이론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²⁵ 이는 정체성 정치의 영향과 더불어 인종, 젠더, 계급, 성적 지향 등 주변화된 삶의 양식과 관련한 문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쿨저는 자전적 질병 서사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우선 저자가 다양하지 못하고 계급적 특성이 반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당한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 저자들이 주로 질병 서사를 서술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연구 주제로서의 매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질병과 장애 경험에만 제한된 주제 역시 폭넓은 관심을 받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질병의 극복과 생존 혹은 실패와 죽음이라는 관습적인 플롯을 지니는 서사라는 점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²⁶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전적 질병 서사에는 문학과 서사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이 있다. 일찍이 호킨스는 투병기가 자서전 이론의 주요 쟁점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아의 존재론적 특성, 서사의 사회문화적 구성 그리고 과거 재현의 진실

24 Ibid., p. 11.

25 프랭크는 문학과 서사 이론에서 소외되는 자전적 질병 서사를 ‘고아 질병’(orphan disease)에 빗대어 ‘고아 장르’(orphan genre)라고 부른다. ‘고아 질병’은 발병률이 너무 낮아 연구와 약물 개발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 질병을 일컫는다. A. W. Frank, “Reclaiming an Orphan Genre: The First-Person Narrative of Illness”, *Literature and Medicine*, 13-1, 1994, p. 18.

26 G. T. Couser, op. cit., p. 7.

성 등에 주목하였다. 호킨스는 투병기가 자아의 신체성을 강조하여 자아의 실재성에 대한 재 관심을 촉구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변모하는 질병 경험이 자아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자전적 질병 서사에서는 질병 경험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자아 회복과 삶의 지혜를 획득하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과거가 변형되고 재구성된다는 자서전 이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²⁷

최근에 자전적 질병 서사는 자서전 이론을 넘어 서사 이론 일반에도 비판적 성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서사적 질서, 언어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작가-독자 관계의 역동성과 서사 윤리의 측면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

질병은 신체적 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는 변화 때문에 낮설게 된 몸,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된 몸, 그리고 인과 관계를 상실한 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서사의 선형성과 인과성에 도전하며, 이 과정에서 시공간 감각과 인과성의 해체와 서사적 질서의 회복 사이에 긴장과 투쟁이 일어난다. 이는 질병 서사에 담겨 있는 연속과 단절의 변증법과 질병 서사의 체현된 본질을 드러낸다.²⁸ 하지만 질병 서사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서사적 질서를 계속 모색하며, 서사 이론에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질병 경험은 서술할 수 없는 것을 서술하려는 시도 혹은 언어적 표현의 초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질병 서사는 이러한 언어적 서술의 한계와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서사 이론에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²⁹ 즉,

27 A. H. Hawkins, op. cit., pp. 17-18.

28 S. Rimmon-Kenan, "What Can Narrative Theory Learn from Illness Narratives?", *Literature and Medicine* 25-2, 2006, p. 245.

29 Ibid., p. 245.

서술할 수 없고, 서술에 저항하는 몸을 어떻게 서사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서사의 경계를 확장하고, 몸과 언어와 경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질병 서사에는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 사이의 긴장이 담겨 있다. 고통스러운 저자의 질병 경험은 독자에 의해 언제든지 외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체화된 경험의 강요와 독자의 거절 가능성 사이에 긴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질병 서사는 공감 형성과 독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 잡기를 요구한다.³⁰ 게다가 자전적 질병 서사의 허구적 요소는 진정성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반응과 서사 윤리적 측면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병 서사는 서사 윤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작가-독자 관계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결국, 자전적 질병 서사를 기존의 서사 이론을 통해 들여다보는 일과 더불어 자전적 질병 서사가 기존의 서사 이론에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도 필요한데, 이는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관점에서 취약성의 서사와 서사 이론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취약성의 서사와 인권

4.1. 고통과 인권

30 Ibid., p. 249.

현대의학 담론에서 취약성 서사가 개별 인간의 고통을 재발견하여 귀 기울이는 데에 쓰이는 것과 유사하게, 법학에서 이는 자유주의적 근대법이 상정한 자율적 주체 상에 내재한 핵심적인 전제들과 형식적 평등 개념을 문제화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³¹ 취약성은 인간 존재에 내재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조건인 동시에³², 세계와 타자의 폭력에 항시 노출된 주체들이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는 계기이다.³³ 더 나아가 그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연대 또한 그 자체로서 허물어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것임을 전제로 한 채³⁴ 각각의 주체가 경험하는 세상을 확장 구축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감지하기 위한 예민한 축으로서 기능한다.³⁵ 비취약성(invulnerability)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편적 취약성에 대한 개별적 회복력(resilience)이 발현될 수 있을 뿐이라 보았던 마사 파인만(Martha A. Fineman)은 그 과정에서 ‘반응하는 국가(responsive state)’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³⁶ 한편 코일(Coyle)은 취약성과 회복력은 일차적으로 법과 행정에서 분리된 채 시민사회의 담론 형성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³⁷ 더 나아가 인권의 범주를 비인간 주체와 환경으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취약성 논의에서 읽어낸

31 M. Fineman, A. Grear, “Vulnerability as Heuristic -An Invitation to Future Exploration”, M. Fineman & A. Grear eds.,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Farnham: Ashgate, 2013), p. 1.

32 M. Fineman,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M. Fineman ed.,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La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p. 161.

33 E. Boubil, “The Ethics of Vulnerability and the Phenomenology of Interdependence”, *Journal of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9-3, 2018, p. 183.

34 Ibid., p. 184.

35 Ibid., p. 184.

36 M. Fineman, A. Grear, op. cit., p. 2.

37 Ibid., pp. 4-5.

연구들도 존재한다.³⁸

인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 할 때 인권법은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 처한 아픔과 상처를 보고 듣는 것을 출발점으로 할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하며 재해를 예방·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 상을 파기한 취약한 주체 상은 인간, 더 나아가 총체적인 생명체 질서의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권’ 개념을 넘어서 ‘동물권’이나 ‘지구권’ 등 인권의 범주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상상력 또한 이를 통해 가능해진다. 가령 인도주의적 전통에서 자연 친화는 인간 주권을 비인간에까지 일부 확대 적용하는 것인 데에 반해, 취약성 담론은 인간과 비인간이 공유하는 취약성으로부터 사회생태적 정의의 근거를 끌어낸다.³⁹ 취약성 프레임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왔던 ‘인류 진보’ 관념의 함정을 부각하며,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에 내포된 인간중심적 지향을 폭로한다.⁴⁰

또한 취약성은 법에 의해 그 법의 테두리 바깥에 위치 지어지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권리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근대 민족국가 체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국적(nationality)

38 A. Satz, “Animals as Vulnerable Subjects: Beyond Interest-convergence, Hierarchy, and Property”, M. Fineman, A. Grear eds.,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Farnham: Ashgate, 2013), pp.171-197; L. Kotzé,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Anthropocene”, *The Anthropocene Review* 1, 2014, pp. 252-275.

39 A. Timmer, M. Baumgärtel, L. Korzé, L. Slingenbergh, “The Potential and Pitfalls of the Vulnerability Concept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39-3, 2021, p. 191.

40 Ibid., p. 193.

또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개념 범주를 통해 관리해 왔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국가에 대한 소속의 원천을 의미하는 한편, 시민권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이자 자격권의 의미로 좁게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점차 국가가 위로부터 부여해 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생성해 가는 동학적 개념으로 재정립되어 왔다. 국가법의 구속력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법적·형식적 시민권 개념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맞서 외국인노동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주권국가의 국민 바깥에 위치하는 이방인의 권리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몸을 가진 인간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인정함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타자에게 말 걸지 않고서는 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받는 상처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지점에서 연대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차이 나게 만드는 것, 바꿔 말해 우리의 단수성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있음을 취약성 연구는 강조한다. 그런 견지에서 상처를 통한 연대는 새로운 성원권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타자가 공동으로 놓여있는 수동성과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인정하고⁴¹ 권한을 가진 ‘나’가 아닌 세계 속에서 자리를 박탈당한 ‘타자’의 권리 속에 인권을 정초 지음으로써⁴² 자기중심적 권리 담론이나 개인적 책임 담론에 기초한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인권 구상에서 벗어나 ‘호모 파티엔스의 인권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갈 수 있다.⁴³ 비록 인권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화하는 차원보다 기존

41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29, 한국여성철학회, 2018, 76-77쪽.

42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101쪽.

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수사 차원에서 사용되었다는 등의 한계는 아직 존재하지만, 취약성 개념은 근래 시민권과 이민자들의 사회권,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 등을 다루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결정문에도 등장한 바 있다.⁴⁴

4.2. 취약성 서사의 인권법적 쓰임새

이처럼 취약성이 인권법 담론의 전제이자 토대가 된다고 간주할 때, 이를 포착하여 읽어내는 데에 효과적인 기제가 되는 것이 문학적 서사이다. 문학은 기존 인권 담론이 미처 가 닿지 못한 지점까지 우리의 인권 감수성을 끌어가고, 소수집단의 집단정체성 안에서 다시금 숨죽여졌던 소위를 드러내며, 저자마저 간과한 편견이나 차별을 비판적 독해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게끔 한다.⁴⁵ 문학적 서사는 ‘기억되는 것’ 혹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창작자에 의해서건 수용자에 의해서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것들을 포착하여 공동체의 기억공간으로 들어 놓는다.

취약성 서사의 인권법적 쓰임새는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을 키워내는 것에 있다. 이는 문학적 언어 안의 고통의 경험들이 절실히 담긴다는 차원과 함께 문학의 고유한 감성적 호소력이 독자들을 특정한 행위 방향으로 결집시킨다는 차원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기존 인권 담론을 의문시하며 ‘생성 중인 인권’⁴⁶을 걸어 올리도록 추동하는 것 또한

43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 황정은 소설에 재현된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한 법문학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85,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138쪽.

44 A. Timmer, M. Baumgärtel, L. Korzé, L. Slingenberg, op. cit., p. 190.

45 이소영, 앞의 논문, 2021, 112쪽.

46 이 개념은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231쪽 참조; 또한 이준일 교수는

취약성 서사의 쓰임새라 할 수 있다.⁴⁷ 가령 비판적 소설 읽기는 다문화사회와 문화정체성,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관계, 소수문학의 정치성 등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한국인’의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포용·포섭하는 서사가 갖는 문제를 발견하여 들여다보는 데 기여한다.

일례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문제에서 취약성 서사는 국가법에 의해 ‘희생자’로 호명되지 못한 존재들의 상흔을 읽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한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권력적이고 제도적인 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와 민주적 질서를 복원하는 사후 조치로 이해된다.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기념의 제도화, 역사 왜곡·부정에 대한 처벌 등 과거의 부정의를 정정하고 사회적 상흔을 애도하는 공적 과정은 법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국가는 입법 및 사법을 통해 기억을 교정하고, 교정된 기억을 공고화하는 한편, 그 공고화한 기억의 왜곡을 규제하기 때문이다.⁴⁸ 그런데 이러한 ‘법을 통한 과거청산’ 절차들은 사망자나 부상자, 행방불명자나 유족은 아니지만 국가폭력의 기억으로 직·간접적 고통을 경험한 목격자, 후속 세대의 사후노출자⁴⁹, 혹은 공권력에 의해 ‘가해자 위치에 세워진 자’의 상흔에는 응답하지 못한다. 이들이 법적 배상의 대상인 피해자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의미에서 이를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라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433쪽 참조.

47 이상돈·이소영, 「법문학비평의 개념, 방법, 이론, 실천」, 『안암법학회』 25, 안암법학회, 2007, 420쪽;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 -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 법문학비평」, 『법철학연구』 14-1, 한국법철학회, 2011, 215쪽.

48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사회적 기억의 구성」,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4쪽.

49 국가폭력 ‘사후노출자’에 관한 논의는 김종곤, 「5·18 사후노출자의 트라우마와 이행기 정의로서 사회적 치유」, 『통일인문학』 9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48-87쪽 참조.

국가폭력의 흔적들은 당사자나 혈연뿐 아니라 과거청산 관련 법제가 규정한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피해자 범주 바깥의 존재들이 경험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집단적 오명의 상징폭력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 때로 이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어내기 위해 허구를 구현하거나 내면에 장착하는 멜로드라마적 서사화를 수반하기도 한다.⁵⁰ 내밀하고 형언불가능한 기억이 어떤 망각이나 왜곡, 압축 혹은 변이를 거쳐 발화되었는지 살핌으로써 서사에서 강조된, 혹은 지워진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리함으로써 배·보상 프레임으로는 오롯이 포착되지 않는 균열과 모순을 찾아낼 수 있다면, 문학은 단지 재판을 다룬 역사소설을 소개하거나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과거청산 관련 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인권법에서 수행할 것이다.

5. 취약성의 서사와 인류세

인류학 분야에서는 특히 재난과 관련해 취약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인류학 저작들은 취약성 개념이 재난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개념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⁵¹ 우선 지적되곤 하는 것은 취약성 개념이 정의되고 사용되는 방식이다. 취약성 개념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정의되는 경우, 일관된 적용과 분석 능력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연구자들 사이의

50 A. Goldberg, "The Victim's Voice and Melodramatic Aesthetics in History", *History and Theory* 48, 2009, pp. 230-231.

51 R. E. Barrios, "Resilience: A Commentary from the Vantage Point of Anthropology," *Annals of Anthropological Practice* 40-1, 2016, pp. 28-38; E. K. Marino, A. J. Faas, "Is Vulnerability an Outdated Concept? After Subjects and Spaces," *Annals of Anthropological Practice* 44-1, 2020, pp. 33-46.

생산적인 소통을 가로막게 된다. 나아가, 취약성을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적용하여 이들을 ‘취약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구자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들을 타자화하고 본질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취약성 개념이 재난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취약성 개념과 정치생태학, 정치경제학, 탈식민주의 연구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한 건 아니더라도, 취약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재난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약하다는 점 또한 거론된 바 있다.⁵²

취약성을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전체의 고정된 속성으로 보지 않고자 할 때 취약성 “서사”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취약성 서사는 취약성 개념을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반대로 구조적 불평등이 그대로 개인 경험이 된다고 보지도 않는다. 개인의 경험이 가지는 사회적 맥락 속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 실천적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취약성 서사는 회복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역량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접근에 반대한다. 결국, 재난 상황에 관한 인류학 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바는 다양한 가치관과 미래들의 경합이며, 이러한 경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집단이나 상황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사들을 포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취약성 역시 단지 재난 상황에서 회복력의 작동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속성이 아니라, 재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를 서사화함으로써 변화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취약성과 서사를 결합할 때 취약성을 구조적 불평등과

52 R. E. Barrios, “Resilience: A Commentary from the Vantage Point of Anthropology.” *Annals of Anthropological Practice* 40-1, 2016, pp. 28-38.

동일시하거나 특정 집단의 속성으로서 본질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재난 대응에서도 경험의 섬세한 결을 인지하면서도 더욱 현실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성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 서사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 인류세 연구이다. 현대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급격하게 자리 잡은 인류세 개념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지질시대의 이름이다. 인류세 개념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기후 재난과 전쟁, 찾아지는 팬데믹 등 현대 인간의 취약한 삶을 드러내 준다. 하지만 인류세 개념이 이렇듯 빠르게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넘어서 지금 인류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서사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계와 함께 대중적 관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단지 위기를 강조하는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실천을 끌어낼 수 있는 서사적 힘이 없었다면 인류세 개념은 지금처럼 큰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섬의 인류세 담론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섬이나 해양의 문제가 종종 거론되곤 한다. 섬은 기후 위기와 쓰레기,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것이라 예견되는 종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수 산성화, 해수 온도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바다 쓰레기 등 섬은 인류세 시대에 위기에 처한 인간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등장한다. 섬은 이미 가지고 있던 낙후와 고립의 이미지에 더해서 이제 기후 위기의 상징이자 인류세의 알레고리로서 취약성의 상징이 된다.⁵³

53 E. M. DeLoughrey, *Allegories of the Anthropo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9) 참조.

이는 섬이 가진 곤란을 드러내어 해결을 모색하는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서 취약성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고정된 속성으로 보는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섬의 주변성을 강화하고 취약한 대상으로 고착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섬과 바다를 피해의 상징으로만 봄으로써, 인류세에 대한 새로운 개입을 만들어내는커녕 이미 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항의 주체들과 변화 양상마저도 볼 수 없게 만든다.⁵⁴

따라서 섬의 취약성 역시도 어떤 고정적 속성에 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중층적 성격을 발견하고 서사화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류세 논의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는 섬의 취약성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섬이 가진 토착 지식이나 생활방식을 배움으로써 생태 복원력(resilience)을 키워 인류세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섬의 취약성을 영구적인 속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복원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섬이 가진 복원력이란 섬이 처한 취약성과 불평등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취약성 논의가 취약성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객관적인 상태나 속성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듯이, 일반적인 복원력 논의는 복원을 흔히 이전 상태로의 복귀로 보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복원력이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한다.⁵⁵ 그러나 인류세와 기후위기에 수반되는 지금의 위험이란 앞질러 예측할 수도 없고, 특정한 집단이 독자적으로

54 백영경, 「섬의 시각에서 본 인류세: 새로운 복원력 개념을 통한 대안의 모색」, 『인간·환경·미래』 28,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93-118쪽.

55 D. Chandler, J. Pugh, "Islands of Relationality and Resilience: The Shifting Stakes of the Anthropocene," *Area* 52-1, 2020, pp. 65-72.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취약성과 복원력을 고정된 어떤 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집단이 가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그 역사적 조건 자체를 다르게 보고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취약성 서사가 강조하는 바이며, 현재의 위기가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는 취약성을 인정함으로써 더는 통용될 수 없는 낡은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을 경계하되, 새로운 서사 만들기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을 길러 나갈 방안을 길을 열어준다. 물론 취약성 서사를 통해 기후 위기와 인류세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약성을 인정하되 서사를 통해 세계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취약성 서사의 접근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취약한 존재들이 가진 가능성은 지금의 현실 문제를 만들어낸 방식에 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소지가 조금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비관적 실천 서사학’의 관점으로 취약성과 서사의 상호 관계를 다층적이고 학제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서사가 단순한 경험 전달을 넘어선 실천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취약성은 인간의 생애 전반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특성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법적·생태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따라서 인간의 취약성은 다양한 학문적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는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는 학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 서사학, 법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이 복합적인 취약성의 현상을 조망하는 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약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서사는 이러한 취약성을 단순히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권력의 역학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억압된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실천적 기제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서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가 기존의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취약성 서사가 개인의 경험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경험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 실천적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약성 서사는 기존의 서사 이론이 소홀히 다루었던 서사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틀이 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비판적 실천 서사학은 서사를 이야기 구조 분석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천의 도구로서 권력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발하는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질병 서사와 법적 서사 그리고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취약성 서사 등을 통해 서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천적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질병 서사는 고통의 경험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통해 의료적 돌봄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 서사에서 서사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실존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학적·사회적·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또한 질병 서사 자체가 기존의 서사 이론이 담지하고 있는 서사적 정체성이나 서사 윤리 등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법적 서사와 인권 서사를 읽어내는 데에도 취약성 서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사는 법적 장치 안에서 취약한 집단이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로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내재된 이성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권리 ‘보호’의 관행을 넘어서 생생 중인 권리들을 발굴하여 법 담론 안으로 끌어올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근대법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 상을 취약한 주체 상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호모 파티엔스의 법’을 구상해 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인류학적 관점에서 취약성 서사는 인류세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복합적 취약성을 재해석한다. 인류세 시대의 복합 위기는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드러내며, 이는 기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성 서사는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적 재난과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인류세 담론 속에서 섬과 같은 취약한 공간은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존 전략과 저항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생태적·사회적 대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취약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관점에서 서사는 사회적 연대와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취약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과정은,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서 권력 구조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 실천적 행위가 된다. 서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

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비판적 실천 서사학은 이러한 서사의 힘을 분석함으로써, 서사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실제로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실천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틀 안에서 서사가 취약성을 어떻게 포착하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권력관계를 비판하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저항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비판적 실천 서사학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맥락을 반영하는 특정 취약성 서사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취약성 서사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에 저항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익 역. 에릭 J. 카셀.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코기토. 2002.
-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29. 한국여성철학회. 2018.
- 김종곤. 「5·18 사후노출자의 트라우마와 이행기 정의로서 사회적 치유」. 『통일인문학』 9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 김준혁 역. 리타 샤론 외.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2021.
- 노대원. 「길 위의 포스트휴먼 - 박미하일 소설 『에올리』의 포스트휴먼 디아스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87.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_____. 『몸의 인지 서사학: 질병과 치유의 한국소설』. 박이정. 2023.
- _____.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 _____. 「힐링 담론과 치유의 문학교육 — ‘상처 입을 가능성’과 ‘문화 의사’ 개념을 통한 비판적 성찰」. 『국어교육연구』 68. 국어교육학회. 2018.
- 노대원 · 이소영 · 황임경.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3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 노대원 · 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 백영경. 「‘섬’의 시각에서 본 인류세: 새로운 복원력 개념을 통한 대안의 모색」. 『인간 · 환경 · 미래』 28.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 유병선 역. 리처드 세넷. 『뉴캐피털리즘』. 위즈덤하우스. 2009.
- 윤조원 역.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 이상돈 · 이소영. 「법문학비평의 개념, 방법, 이론, 실천」. 『안암법학』 25. 안암법학회. 2007.
- 이소영. 「법문학비평과 사회적 기억의 구성」. 『서강인문논총』 40. 서강대학교 인문

- 과학연구소, 2014.
- _____. 「법문학비평과 소수자의 내러티브 - 박민규, 윤성희, 김애란의 단편소설에 대한 법문학비평」. 『법철학연구』 14-1. 한국법철학회. 2011.
- _____.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 황정은 소설에 재현된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한 법문학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85.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이애리 역. 아서 클라인만.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사이. 2022.
- 이정엽 역. 닉 콜드리.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 글항아리. 2014.
-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 황임경. 「편역성과 취약성의 교차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명/삶의 정치」. 『횡단인문학』 17.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4.
- _____.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25. 한국의철학회. 2018.
- _____. 「의학에서의 서사, 그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4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 Barrios, R. E. “Resilience: A Commentary from the Vantage Point of Anthropology.” *Annals of Anthropological Practice* 40-1. 2016.
- Boublil, E. “The Ethics of Vulnerability and the Phenomenology of Interdependence.” *Journal of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9-3. 2018.
- Chandler, D. Pugh, J. “Islands of Relationality and Resilience: The Shifting Stakes of the Anthropocene.” *Area* 52-1. 2020.
- Charon, R. *Narrative Medicine: Honoring the Stories of Ill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Couser, G. T. *Recovering Bodies: Illness, Disability, and Life-Wri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DeLoughrey, E. M. *Allegories of the Anthropo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9).
- Fineman, M.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Fineman, M. ed.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La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 Fineman, M., Gear, A. “Vulnerability as Heuristic - An Invitation to Future

- Exploration,” Fineman, M., Gear, A. eds.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Farnham: Ashgate, 2013).
- Frank, A. W. “Reclaiming an Orphan Genre: The First-Person Narrative of Illness,” *Literature and Medicine* 13-1, 1994.
- _____. *Letting Stories Breathe: A Socio-Narrat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Hawkins, A. H. *Reconstructing Illness: Studies in Pathography*. (West Lafayette, IN: Purdue University Press, 1999).
- Goldberg, A. “The Victim’s Voice and Melodramatic Aesthetics in History,” *History and Theory* 48, 2009.
- Kotzé, L.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 Anthropocene,” *The Anthropocene Review* 1, 2014.
- Mackenzie, C., Rogers, W., Dods, S.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arino, E. K., Faas, A. J. “Is Vulnerability an Outdated Concept? After Subjects and Spaces,” *Annals of Anthropological Practice* 44-1, 2020.
- Rimmon-Kenan, S. “What Can Narrative Theory Learn from Illness Narratives?” *Literature and Medicine* 25-2, 2006.
- Satz, A. “Animals as Vulnerable Subjects: Beyond Interest-convergence, Hierarchy, and Property.” Fineman, M. & Gear, A. eds.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Farnham: Ashgate, 2013).
- Timmer, A. et al. “The Potential and Pitfalls of the Vulnerability Concept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39-3, 2021.

Abstract

Vulnerability and Narrative: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to Critical-Practical Narratology

Lee, So-young · Noh, Dae-won ·
Paik, Young-Gyung · Hwang, Im-Kyung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vulnerability and narr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practical narratology’, exploring their significance and role across medicine, law, and anthropology. In the complex social context of the 21st century, vulnerability extends beyond individual dimensions to encompass social, political, and ecological issues. This study analyzes how narratives capture the multifaceted nature of vulnerability and catalyze social change and practical responses.

Illness narratives reconstruct the meaning of suffering by narrativizing patients’ experiences, playing a crucial role in treatment and recovery. Eric Cassel and Arthur Kleinman, transcending the mechanistic biomedical model, emphasize the holistic impact of illness on an individual’s life 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uffering. This approach has evolved into narrative medicine,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enabling new medical approaches through multifaceted analysis of patients’ suffering.

In legal contexts, vulnerability narratives reconsider the concept of autonomous subjects presumed by liberal modern law, emphasizing universal human vulnerability to establish a more inclusive and empathetic foundation for human rights law. These

narratives contribute to asserting legal rights and protections for social minorities and proposing new legal frameworks for social justice, suggesting the potentia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thropocentric human rights concepts.

The complex crises of the Anthropocene, such as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reveal human society's vulnerability in new dimensions. From an Anthropocene perspective, vulnerability narratives reinterpret human impact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explore new forms of social solidarity and response strategies. Particularly, island vulnerability studies explore possibilities for ecological and social alternatives beyond viewing islands as merely vulnerable places.

From a critical-practical narratological perspective, narratives are tools for practice and resistance, enabling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to narrativize their experiences and seek new social orders.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practical possibilities of narratives and critically illuminate the complexity of human experience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leading to practical change.

Keywords: Vulnerability, Critical-Practical Narratology, Vulnerability Narrative, Illness Narrative, Narrative Medicine, Human Rights Law, Social Minorities, Anthropocene, Climate Change

본 논문은 2024년 10월 09일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0월 29일 심사 완료하고,
2024년 11월 02일 게재 확정하였음.